



△ 長津江水力發電所

■ 惡夢의 6·25, 그 참담한 歷史의 證人들

6·25 남침이 있기 전의 북한의 동정을 잠깐 살펴 보기로 한다.

그때, 어쨌든 모든 일에 몹시도 바쁘게 서둘러 냈다. 平元線(원산~평양) 전철화(電鐵化: 陽德~泉城 사이 52km) 사업을 불이 나게 시작하더니, 이와 거의 때를 같이 해서 滿浦線(평양~만포) 전철화(狗峴~古仁 사이 27km) 공사도 서둘러 착수했다. 가뜰이나 어려운 때에 갖가지 자재난과 부품부족에 겹쳐서 기술까지 미숙해서 그저 강다짐으로 내리 조져대며 진행되었다.

기술자며 기능자며, 그리고 노동자와 사무원을 하루 1만명씩 강제 동원했다. 모두가 무보수, 무임금으로 봉사(?) 시켰다. 각종 기재와 부품들을 여기저기서 거두어 땀질하다시피 맞추어 나갔다.

그저없이 고되고 혹독한 노동에 쓰러지는 사람이 속출하자 ‘당’의 한 고위간부가 “영광스러

그리운 長津江아!

잃어버린

내 電氣王國이여!

< 4 >

金 野 麟

운 통일과업에 목숨을 아끼지 마시오!” 그리고는 “이번 공사는 장차 ‘조국통일’에 대비하는 일이고, 위대한 김일성 수상동지의 탁월한 구상에서 나온 사업이오”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어쨌든 이 공사는 1948년 9월에 착공해서 이듬해 1월에 끝났다. 너무 서둘고 조잡한 날림 공사여서 그 후에 보수공사 하느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한편, 두만강 하류쪽에 있는 赤池變電所(함북 경흥군 경흥면 적지동)의 22kV를 66kV로 개조하여 66kV 송전선로 가설공사에 들어갔다. 그 까닭인즉, 조·소 국제철교(朝蘇國際鐵橋)를 놓기 위해서였다.

羅津을 떠나 雄基를 거쳐, 두만강 기슭을 거슬러 올라가는 동부선(羅津~南陽)이 있는데, 하류쪽 洪儀驛(赤池변전소 아래쪽)에서 증산(甌山)을 돌아 내려가면 용현(경흥군 노서면 龍峴)이란 마을이 있다. 여기서 맞바로 두만강을 건너면 소련땅(연해주)이다.

이즈음, 소련측 기술진과 북한 기술자와 노무자들의 합작공사로 두만강을 가로 질러 '조·소 국제철교'가 놓여지고 있었다(1948. 12). 기차 레일을 깔기 위해 1949년 9월부터 철로부지를 닦으면서 철도공사가 본격적으로 이쪽(북한)에서 시작되었다. 북한 전역에서 강제동원되어 매일 3천명씩 공사판에 투입됐다. 중장비는 커녕 운반차조차 제대로 없어, 한갓 삽과 곡괭이, 망치와 삽태기 따위로, 서슬이 퍼렇게 중노동 현장에 그저 억지추항으로 마구 밀어 부쳤다.

그런데 이 무렵 소련땅으로부터 이미 수 많은 장갑차가 출몰하여 두만강 철교를 건너오기 시작했고, 막대한 군수물자가 트럭에 실려(운전사는 모두 북한사람) 홍의역까지 왔다. 여기서 기차에 실려 일단 남쪽의 웅기, 나진으로, 더러는 북쪽 아오지 방면으로 수송됐었다. 매일 산더미처럼 쌓였던 군수품이 밤사이에 멀리 원산쪽으로 옮겨져 갔다.

이 쪽(북한지역)의 철도공사는 그렇게 다그쳐 피치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6·25(1950) 직전까지 85%의 공정에 머무르고 말았다.

역사는 반복하는 것일까. 그 시절 소련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소련 군대가 완전 철수(1948. 12. 26)했다고 발표하면서 크레블린과 김일성은 「남조선에서도 미군은 철수하라!」고 북치며 외쳐댔다. 이듬해 남한에서 떠들썩하게 미군이 철수(1949. 6. 29)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에서는 중공군 제166사단 소속의 조선인 의용부대(1만명)가 압록강을 건너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만포선과 평원선을 타고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1949. 7. 25). 또 다른 조선인 부대(1만명)도 두만강을 건너 회령을 거쳐 나남에 왔다. 이처럼 그 이듬해 봄(1950. 4. 10)까지 많은 조선인 부대가 김세를 첼세라 야음을 타고 감쪽같이 들어와 인민군 제6사단, 제7사단(원산), 제5사단(나남)으로 편성됐던 것이다.

남침이 날로 무르익어 가던 그 무렵에, 김일성은 평양에서 「1950년이야말로 조국통일의 해」

라며 자신감에 넘치는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었다(1950. 1. 1).

어디 그뿐인가. 녹음이 한창 우거질 즈음에 김일성은 못내 흥에 겨워 또 장황하게 성명을 발표했다(1950. 6. 7).

그 성명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있다.

「8월 초순께 남북 총선거를 치르고 8월15일에는 서울에서 통일국회를 열겠다」.

이 성명은 곧 로동신문(6월8일)을 비롯한 평양의 여러 신문에 크게, 그리고 일제히 보도됐다. 소련의 「이즈베스차」(6. 10)도 아무런 논평없이 김일성의 성명 전문을 그대로 옮겨 실었다.

6·25를 몇 달 앞두고 장갑차니, 그 밖의 술한 군용열차가 밤낮없이 원산쪽으로 내달았다. 어쨌든 6·25 바로 직전에는 鐵原(강원도)과 連川(경기도) 일대에 인민군이 와글와글했었다. 그래서 사람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나는갑다'며, 크게 불안해하며 걱정을 했다. 엄연한 역사의 사실을 갖고도 김일성은 적반하장(賊反荷杖)격으로 지금도 저 6·25를 북침이라고 떠들어 대고 있다.

호루시초프(전 소련 수상)의 회고록 가운데 「조선전쟁」 항목에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일성 수상이 이끄는 '인민군'이 남반부 해방을 위해, 38선을 넘어 남진(남침의 뜻)했다」고 그렇게 분명히 기술되어 있다.

한편, 마르크스·레닌주의로 탄탄히 다져 온 사상무장과 또 공산당 특유의 조직력이다 강력 한 인민군 무력부대까지 휘어잡은 평양정권이, 제간에는 난공불락의 왕국인양 떠벌이며 으시대고 또 뽐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러던 것이 UN군과 국군이 북으로 밀어 닥치자 강병을 자랑하던 인민군이 그만 가랑잎처럼 날려, 도망치기가 바빴다. 정말 비굴할만큼 허약한 물골이었다고 한다. 철웅성 같은 인민공화국이 와르르...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산골짜기에까지 베아리 쳐 오더라고 李聖鍾씨는 그때를 회상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같은 쓰라린 역사의 교훈을 잊고, 지금도 김일성은 '미군철수'나 '남반부해방'을 되풀이 외치고 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말이 생각난다. 「우리가 역사의 교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역사의 교훈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6·25 때의 그 처절한 참상과 참혹했던 동족상잔의 비극을 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

3년 동안에 걸친 치열했던 그 피비린내 나던 싸움은, 단지 우리 국토의 황폐뿐만 아니라 6·25 전쟁으로 산산이 찢어진 인간성의 폐허까지 우리들 가슴속에 안겨주고 말았다.

6·25 때,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1950. 6. 28)하자 뒤따라 온 행정요원 중에 張弘南이가 있었는데, 이 '동무'를 京城電氣 사장 자리에 앉혔다. 격에 맞지않은 으리으리한 사장실에서 가슴을 설레며 끈질 「저 — 월남해 온 아무개와 아무개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며 성가실 정도로 묻더라는 것이다.

장흥남은 제정 말기에 羅津支店(함북) 용도계에 있다가 고향인 會寧으로 자청해서 전근해 갔다. 해방 후 회령사무소장이 됐다. 본시 이렇다 할 사상이나 주의 같은 것은 없고 단지 남달리 출세욕이 강해서 항시 중앙(평양행)에 눈독을 들여, 유일한 소망이 그것이었다. 직장 동료들 앞에서 늘 아는 척 하면서 사상무장을 과시하느라 괜히 눈을 부라리며, 고함고함 치는가 하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면서 그럴싸하게 당에 대한 충성을 얼렁뚱땅 연출해 내는 그런 알갖은 솜씨를 가진 위인이었다.

「저 빈 껌데기가 출세해 보려고 또 설쳐대는구나」 남들이 뒤에서 빈정거리고 있었는데, 그 후 북청지부장으로 승진되더니 어떤 연줄로 마침내 대망의 중앙(전기관리국) 진출에 성공했다.

이렇게 출세가도를 즐기차게 달려, 경성 전기사장으로 불과 두달 남짓하게 거드름을 피우다가 결국, UN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썰레벌떡 다시 북으로 출행망치고 말았다.

8·15후, 월남해 온 사람들 가운데는 북에서 파송되어 온 행정요원이나 인민군 장병들과 그 전 이북에서부터 지면이 있거나 또 친분이 두터운 사람도 꽤 많았다.

그들은 한강이 끊겨 서울에서 피신해 다니다가 어찌어찌하여 행정요원이나 인민군들과 우연히 만나 본의 아니게 접촉해 왔다. 그런데 인민군이 서울에서 후퇴할 때, 그 친구들을 밖으로 불러내어 끌고 갔다. 그들에게 사살되거나 남북되어 행방이 묘연한 월남전기인 동지도 많았다.

▮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요즈음 우리나라 정부나 각 정당, 그리고 국제 각층에서 통일논의가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노래에도 있듯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인데, 우리나라 사람치고 누가 통일을 바라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요 몇년 사이에 대학가와 재야단체에서, 그리고 일부 종교계에서 목청을 돋구어 떠들썩하게 '통일'을 외쳐대고 있지만 통일은 그들만의 특허품이 아니다. 부모처자를 다 버리고 월남해 온 우리들이 실향(失鄉) 40여년을 두고 두고 분단의 아픔과 한을 가슴 속에 응어리지도록 품고 살아 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만큼 남북통일을 애타게 염원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우선 통일해 놓고 보자'가 아니라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에, 서로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설사 그것이 국수주의적인 파쇼독재건, 군부독재건, 또 프롤레타리아 독재건 '독재체제'만은 한사코 배격한다.

더더구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비할 데 없이 소름이 끼칠 정도라는 것은 이미 세인이 다 아는 바다. 루소의 말처럼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그 소중한 자유를 그곳에선 찾아볼 수

가 없다.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없는 곳에 무슨 인간의 진정한 삶이 있단 말인가. 진정 자유가 있는 곳에 내 조국이 있는 것이다.

요즘의 대학 캠퍼스는 ‘통일’과 ‘주체사상’으로 화끈히 달아오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의 가슴은 항상 뜨겁다. 불의와 싸우고 독재에 항거하면 불타는 열정으로 자유를 부르짖고... 사실, 이런 것이 젊은이들의 특권이랄 수도 있다.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그 순수한 동기와 정열어린 애국심에 대해선 우리도 십분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통일문제는 어떤 환상이나 낭만적인 이상론에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냉혹한 현실론에서 그 첫 발을 내딛고 끝맺음을 해야 할 중대한 민족적 대사다. 통일을 누가 마다할 사람이 있겠는가. 다만 베트남식 통일을 염려할 따름이다. 韓承格선생과 全應淵선생도 꿈 많았던 젊은 시절, 진리탐구보다 오히려 무지개같은 이상론이나 매혹적인 이데올로기에 치달던, 그 지난날의 일본(도쿄) 유학 4년의 세월을 회고하면서 그 당시의 사상경향을 다음과 같이 솔직히 털어 놓았다.

1930년대 초에, 제 1차에 이어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초과달성됐느니, 주(週) 5일 노동근무제가 실시되느니..., 그 시절 모두들 소련을 ‘지상의 낙원’이라 꼭 그렇게 믿고 있었다. 30년대 중반에 소련 전역을 공포의 분위기로 소용돌이치게 했던 저 스탈린의 ‘피의 숙청’도 일본신문에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됐지만, 설마 그러랴 싶어서 그것조차 곧이 믿지 않았다. 소련의 매스컴들이 여전히 소련을 지상의 낙원이라고 그럴싸하게 선전하고 있었으니까... 요즈음 세상에, 소련을 지상의 낙원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열간이 취급을 받기가 십상이다.

학생시절엔 한번쯤은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하기 마련이지만 대개가 욕구불만과 어떤 호기심에 밤새워 가면서 그런 책들을 탐독했다. 그 무렵 도쿄 서점가에서는 저 유명한 프로 작가 도

쿠나가(德永直)의 ‘太陽のない街’(태양이 없는 거리)와 고바야시(小林多喜二)의 ‘가니고오쎅’(蟹工船·게잡이 船團) 같은 프로작가들의 작품이 베스트셀러로 날개 돌힌듯이 팔리고 있었다. 지성인들만 읽던 저 유명한 개조(改造)나 中央公論같은 잡지도 한때 거의 프로 작가와 이데올로기와 논객들의 독무대가 되다시피 했다.

그 시절 우리 한국에서도 카프(KAPF·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산하의 李箕永, 韓雪野, 宋影 등을 중심으로 한 프로문학 작가들이 한 동안 문단에서 눈부신 창작활동을 한적도 있었다. 이들 작가들은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을 내세워 가면서 작품활동을 해오다가 저 만주사변(1931. 9. 18) 후부터 시들해지더니 끝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요즈음, 소수의 이른바 주사파(主思派) 학생들이 대학가를 주름잡고 있다지만, 사실은 ‘김일성 주체사상’은 세계 어느 나라 「백과사전」에도 없는 유별난 조작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찍이 레닌은 「선전(宣傳)도 무기(武器)」라고 했다. 오늘날 그같은 선전에 놀아 난 일부 사람들이 참으로 어이없게도 북한을 「지상의 낙원」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다.

1930년대 중엽에, 선동 선전의 귀재(鬼才)라



고까지 일컬었던 괴벨즈가 나치스 독일 때, 히틀러 밑에서 선전부장관을 지냈다. 이 사람이 저 '미치광이 정치가 히틀러'를 신격화(神格化)시킨 장본인이다.

그 괴벨즈가 이런 말을 했다.

'끓임없이 되풀이 반복하고 대중의 심리를 휘어잡으면, 네모꼴(□)을 동그라미(○)라고 논증(論證)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 지금 북한의 선동 선전은 그 수법에 있어서 괴벨즈를 뺀칠 정도로 단수가 훨씬 높고 또 악랄하다.

'6·29 선언' 후 민주화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서 학문과 지성의 전당인 캠퍼스에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정신문화의 산실(産室)이라고까지 일컫는 대학에서, 돌맹이와 화염병이 날고 각목을 휘두르며 심지어 '주파사의 전진기지' 구실까지 하는 걸 보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는 노릇이다. '현대는 사실의 시대'이다. '사실' 그 자체를 똑 바로 인식해야 한다. 일찍이 毛澤東은 「인민! 오직 인민만이 세계 역사를 만드는 원동력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같은 역사의 주체인 '인민'을 중국 공산당은 저 천안문 광장에서 탱크로 마구 깔아뭉개버리지 않았는가.

이제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이 진실인가를 저들 스스로가 우리에게 입증해준 셈이 됐다.

'마르크시스트'들은 결핍하면 '공산주의'를 '인류 최종의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해 왔다. 이 세상에 이 이상 더 훌륭한 정치철학이나 정치이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공산주의'의 터주대감이라 할 수 있는, 소련에서 '페레스트로이카'(개혁·재건)나 '글라스노스트'(개방·정보공개)나 하며, 침몰 직전에 있는 '마르크시즘' 구출작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동 유럽에서는 폴란드를 선두로, 헝가리, 체코, 동독, 불가리아, 유고, 루마니아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도미노 현상으로 차례차례 무더기로 쓰러져 가고 있다.

자유화, 민주화의 물결이, 동유럽을 휩쓸고

있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를 선택하려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문턱에서 몸부림치는 나라, '공산주의'를 아예 내동댕이 치는 나라 등, 마치 1917년의, 저 러시아의 '10월 혁명'(볼셰비키 혁명)을 거꾸로 역전시키는 듯한 무서운 변혁이 휘몰아치고 있다.

이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마침내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론에 무릎을 꿇기 시작한 것이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두 개의 대립된 이데올로기의 승부는 이제 판가름 난 것이나 다름없다.

공산주의 혁명이, 인류 역사 발전에 있어서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했고 또 줄 수도 없다는 것을 '인민'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6·29선언」 후, 아직도 많은 작업과 성취해야 할 것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이 만큼이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근자에 와서 민주화나 자유니해서 민심이 좀 느슨해지니까 너나없이 제멋대로 떠들어 대고 더구나 겁없는 젊은이들이 마구 날뛰며 함부로 짓부수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갈망해 왔던 '자유'였던가. 그토록 소중한 자유를 허망스레 짓밟어 뭉개버리려 하다니... 자유는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만 부여된 특권이다. 자유의 가장 큰 적은 방종(放縱)이다. '자유'는 엔조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守護) 나가야 하는 것이다. 다가오는 '통일조국'을 위해서 더욱 그렇다.

● 他界한 越南電氣人 同志들

돌이켜 보며 8·15 해방도 어느덧 45년이 되고 6·25 사변도 벌써 40년이 나 됐다.

월남해 온 전기인 동지들의 이마의 주름살과 성성한 머리카락이 바로 40년의 나이테를 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얼굴의 주름살보다 사실은 마음속에 더 많은 주름살이 잡혔을지 모른다.

스스로도 험하고 모진 세월을 용케도 살아 왔다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다.

‘만주사변’이니 ‘중·일 전쟁’이니 게다가 ‘태평양전쟁’이니, 어디 그뿐인가. 8·15 후에는 공산 치하에서 간신히 월남해 오자 저 6·25까지 덮쳐 터지는 등 우리들 나이 또래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시기에,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다시피하면서 청춘을 곱스란히 다 빼앗기고 만 셈이 됐다.

월남해 온 전기인 동지들 중에 작고하신 분도 이미 수 백명을 헤아릴 정도로 많다. 韓明鍾씨는 타계하신 그 많은 선배와 동료 전기인들 가운데서 특히 잊을 수 없는 한 분, 곧 자그마치 40년동안 함께 지내온 韓承彬 선배에 대한 추억을 더듬어 가며, 이렇게 전해 주고 있다.

韓承彬씨는 일찍이 일본(도쿄) 고이시가와(小石川) 고등공업(전기과)을 졸업하자 곧 바로 총독부 체신국에 들어 갔었다. 얼마후 거기서 다시 ‘북선합동전기’ 본사로 옮겨 갔는데(1941), 그분의 성품이 워낙 곧고 성실한 데다가 지독스러운 공부벌래여서 입사한 이듬해 2급면허(현재의 1급)를 쉽게 따냈고 또 그 이듬해에는 공무계장(본사)으로 발탁됐었다.

월남 후에는 協和電氣를 이끌어 가면서 그 시절에는 감히 엄두도 못냈던 66kV 변압기 설치공

사를 거뜰히 해치우기도 했다. 한국나일론, 한국제지(안양), 남한제지(신탄진) 등, 굵직굵직한 공사가 다 그분의 손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불타는 집념으로 항상 기술개발에 몰두해 오다가 그만 아깝게 타계하고 말았다고 한다.

거의가 훌훌 단신으로 어렵사리 사선(死線)을 넘어 월남해 온 우리 전기인 동지들이다. 숨막히는 피난생활(1·4후퇴) 속에서, 그리고 환도해서는 황폐한 서울거리에서 온갖 고난과 무서운 시련에 부딪혀 가며 억척같이 살아 왔다.

그분들이 이 시대의 아픔을 한 몸으로 살아왔는데도, 좌절과 절망 속에서 끝내 헤어지지 못한 채 가슴에 맺힌 실향의 한을 그대로 품고 외롭게 숨져 간 동지들이 많다.

38선이랑, 6·25랑, 휴전선이랑, 이같은 쓰리고도 아린 국토분단이 우리들 생활의 리듬을 깨뜨려 놓았고 심지어 우리들의 삶, 그 자체까지 빼앗아 가 버린 것이다. 물거품같은 인생, 생각할수록 인생사(人生事) 무상(無常)함을 느끼게 한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꼭 덧붙여 말할 것이 있다. 1948년 12월쯤 월남전기인 몇몇 사람이 모여 ‘발기인회’(7명)를 맺었다. 그때 ‘서선합동’ 측은



△ 동북전우회 회원들

辺應浩선생이, 그리고 ‘북선합동’측은 全應淵 선생이 맡아, 얼마후 ‘월남전기인 준비(籌備)위원회’를 만들었다. 뉘이어, 서울(중구 鑄字洞) 히가시흥간지(東本願寺) 강당에서 ‘월남전기인 동지회’ 창립총회를 가졌다(1949년 4월초). 150명이라는 예상밖의 많은 전기인 동지들이 모여 대단한 성황을 이루었다.

1·4 후퇴 후,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또 다시 남전(南電) 합숙소를 빌어 ‘동북전기인 침묵회’를 만들었다(1952년 12월).

환도 후, 서울에서 1954년 1월부터 동북전기인 몇몇이 모여 가끔 ‘침묵의 밤’이라 해서 환담을 나누면서 향수를 달래기도 했다.

그로부터 몇년 뒤, 겨우 ‘취지문’이며, 또 ‘회칙’을 꾸며 그제야 본격적인 조직에 착수했다. 수유리(4·19탑 광장)에서 창립총회를 막 열려고 서두르던 참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박대통령 시해사건(1979. 10. 26)이 터져, 집회금지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 다음 해 일찌감치 李泰洽씨 자택에 모여 창립총회를 가진으로써 비로소 ‘동북전우회’가 정식으로 발족됐다(1980. 1. 12).

초대 회장에 全應淵선생을 추대했다. 사실, ‘동북전우회’가 태어나기까지 무던히도 오랜 산고(産苦)를 겪기는 했으나, 30년이라는 긴 세월, 그 산과역을 도맡아 동분 서주하며 전기인 동지를 규합해 온 全應淵선생의 활동에 힘입은 바가 컸었다.

‘서북지구’의 동지들과는 좀처럼 연락이 닿지 않아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으나 하기는 8·15 당시, 그 거대한 수력전기의 약 70%가 ‘동북지구’에 몰려 있기는 했다.

빈 주먹으로 월남해서 오로지 몸에만 의지한 ‘기술’ 하나만을 밀친으로, 그저 뼈를 깎는 노력과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투성이가 되어 일한 분들이 많다.

자박한 피난살림 속에서 고군분투 끝에 그토록 치열한 우리나라 전기업계에서 차츰 두각을 나타내더니 마침내 일가(一家)이룬 사람이 우리

회원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 ‘쟁이정신’으로 열심히 일해 온 자랑스러운 ‘금메달 리스트’라 할 수 있다.

끝으로 한가지, 그동안 귀중한 자료의 선택이며, 또 고마운 말씀을 들려 주신 분들과의 접촉을 알선하는 등 이 글을 마치기까지 韓承格선생의 도움과 노고가 많았음을 여기 한마디 부언해 둔다.

附記

서둘러 글을 마치다보니 미진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간간이 「小史」가 도리어 「史外史」된 느낌마저 드는 곳도 없지는 않으나 이나마 생존한 증인이 우리 곁에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분들마저 없었더라면 그런 이야기 조차 들을 길이 바야 없다. 앞으로도 꾸준히 정확하고 알찬 자료발굴과 증인담문을 거쳐 이 글에 훨씬 더 보탬이 될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미흡하나마 본小史는 일단 이것으로 단원을 내린다.

여기서 다시금 東北電友會 고문 金忠海(相信電氣(株)代表), 會長 李泰洽(海光電氣(株)代表), 副會長 盧情圭(計理士事務所代表), 總務 金福均((株)進榮電機 理事) 諸位의 積極的인 協助에 衷心 感謝드린다.

그간 여러모로 문맥을 살려주기도 했고 또 좀처럼 얻기 힘든 사진까지 곁들여 실으면서 그동안 편집을 도맡아, 애써 주신 편집 담당자에게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參考文獻〕

- 北韓總覽
- 韓國戰史
- 韓國電氣史
-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藤原てい)
- 收復地區電氣事業實態
- 北韓産業調査報告 —
- (李泰俊氏外 現地踏査班 實記)

(연재 끝)